

2011.12.12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종자산업 육성 방안 발표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(목표) 2020년에 종자수출 2억불(현 0.3억불), 2030년에 30억불 달성, 기후변화에 대응 안정적인 식량생산 구축
- (추진내용) 종자 육종연구 기반조성, R&D투자 확대 및 효율화, 종자기업 육성 지원 등 3대 전략 및 10개 중점 과제

□ 주요 내용

- 종자 육종연구 기반 조성
 - (육종연구 인프라 구축) '15년까지 연구시설·시험포장 등을 갖춘 민간육종연구단지(전북 김제시, 57ha)를 조성하여 종자업체(20개소)의 육종 연구인프라를 지원하고, 다양한 돌연 변이품종 선발을 위한 방사선육종연구센터(전북 정읍)를 '13년에 준공
 - (전문인력 양성) 10년간('10~'19) 석·박사급 육종전문인력을 대학과 종자업체의 연구와 실습 병행을 통해 270명 양성
 - (유전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) 각 분야별로 분산 관리중인 농업·산림·수산 유전자원의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검색 및 분양 등 포털 서비스를 제공, 민간 육종가가 쉽게 이용하도록 함.
- 종자 R&D투자 확대 및 효율화
 - (Golden Seed 프로젝트) 수출시장 개척 및 수입대체 전략 품목 20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간('12~'21) 4,911억원 투자
 - ※ 전략품목 : 벼, 고추, 배추, 수박, 무, 토마토, 양파, 낱치, 전복, 돼지, 닭 등

- (GM작물 종자개발) 세계 농작물 종자시장의 30%를 차지하는 GM작물 종자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「GM작물실용화사업단」을 설립·운영('11~'21)하여 수출용 벼, 옥수수, 콩 등을 개발
- (기후변화 적응 품종개발)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2~4℃ 상승시에도 현수준 생산이 가능한 벼, 채소, 어류 품종 등 개발
 - ※ 2℃ 상승시 쌀 생산량은 4.5%, 사과 재배면적은 66%, 고령지배추 재배면적은 70%감소 예상
- (로열티 대응 사업단) 로열티 지급이 많은 딸기, 국화, 장미, 참다래, 버섯 등 6개 작물에 대한 품종 개발·보급(연간 60억원 지원)
- 글로벌 종자기업 육성
 - (사업의 규모화) Golden Seed 및 기후변화 대응 R&D 등 대형 프로젝트에 민간 종자업체를 중심으로 참여토록 하고, 농식품 펀드를 활용하여 종자업체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및 규모화 유도
 - ※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: ('11) 2,300억원 → ('12) 3,300
 - (수출시장 개척 등) 아시아국가 등을 대상으로 종자시장 조사 및 수출 품종 전시포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, 유전자원 유출방지 등을 위해 해외에서 채종하는 종자를 국내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('12년도 : 25억원)

주간농업 농촌동향 11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6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11월 농림수산물 수출 연간누계 최초 66억불 달성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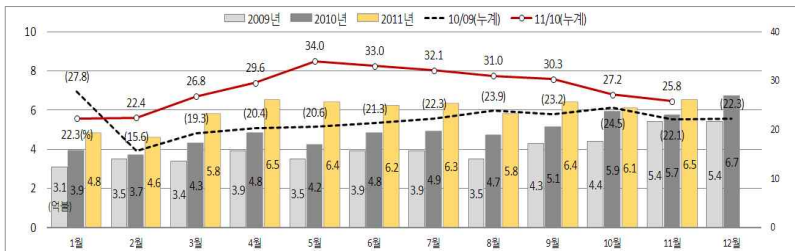
- 11월 월간 수출액 654.9백만불로 최대 실적
- 일본 수출 사상 최초로 20억불 돌파
- 연간 1억불 이상 수출국가에 인도 포함 11개국으로 확대

□ 주요 내용

- '11년 11월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이 66억불 기록
 - 연간누계 실적이 60억불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며, 11월까지 수출은 25.8%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.
 - 11월 수출은 654.9백만불로 올 들어 최고치 기록

- 김(전년동기대비 57.0%증가), 커피조제품(47.7), 파프리카(18.5) 등 주력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수출증가율은 다시 두 자릿수(15.1%)를 회복
- 품목별로는 김(57.0%), 고등어(65.1) 등 수산물 수출이 호조
 - 고등어는 수출용 소형고등어 어획증가로 이집트·베트남으로 냉동, 스리랑카로 통조림 수출이 증가하였으며, 오징어, 삼치, 게살도 수출 호조
 - 수산물 최대 수출품목인 참치(1.1%)는 전월 다소 부진하였으나, 11월 대일 수출 증가로 반등세
 - 배는 11월 들어 대만 수출이 회복되며 소폭 증가하였고, 단감과 감귤은 10월말 이후 본격적 수출이 진행되며 각각 말레이시아,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
 - 다만, 사과(△33.0%) 수출은 최대 시장인 대만의 잔류농약 전수검사 실시로 다소 위축
- 국가별로는 주요국 대부분 고른 증가세
 - 일본(24.0%) 수출은 한류 및 연초 지진발생 효과 등에 힘입어 20억불을 돌파하였고, 현 추세로 금년도 일본 수출은 역대 최고치 달성 가능
 - ※ 주요품목 : 참치(151.2백만불), 제3맥주(130.9), 김치(78.9), 파프리카(59.1), 김(51.9)
 - 중화권(43.8%), 아세안(38.8) 등 신흥국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, 아세안 국가 중 對인도네시아 수출은 1억불을 달성하여, 11월 현재 1억불 이상 수출국은 11개국으로 증가
 - ※ 2010년 1억불 이상 수출국 : 일본, 중국, 미국, 홍콩, 러시아, UAE, 대만, 태국, 베트남, 이라크, 필리핀

<월별 수출추이>



당월증가율(%)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2010년	27.8	5.0	26.4	23.1	21.6	24.6	27.7	35.4	18.4	34.6	5.5	23.5
2011년	22.3	22.5	34.5	36.7	51.6	28.7	27.2	23.9	25.7	4.9	15.1	-